

순천 봉화산 둘레길 토지보상 특혜 논란

시장과 시장가죽 소유 땅 4000여㎡ 포함

필요량보다 130배 사들여... 예산낭비 지적

순천시가 개발 중인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시장과 가죽이 보유한 토지를 포함해 필요한 부지보다 많게는 수백배에 달하는 땅을 사들이는 등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종훈 시장이 2012년 4월 보궐선거 때 공약으

로 내놓은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총 104억원의 예산을 들여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둘레길은 너비 1.5~2m, 길이 12.5km에 조성 면적만 1만9263㎡(사유지 1만2921㎡) 규모로, 부지 일대는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다. 순천시는 이 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을 하면서 둘레길에 토지 일부만 포함해도 전체 땅을 사주기로 하고 필요한 토지 1만2921㎡보다 130배에 달하는 171만4048㎡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62만7305㎡에 대해서는 50억원을 들여 이미 보상을 마쳤고, 2016년까지 나머지 토지보상에 1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업 부지에 조 시장의 땅(826㎡)과 조 시장 가족이 운영하며 부인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

재단 임야(3219㎡)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순천시가 시장 소유 땅을 포함해 과도하게 토지를 사들이면서 예산 낭비와 선심성 행정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봉화산에는 22개 등산로가 조성돼 있으나 시가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인근의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도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모두 무

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해당 토지를 2020년까지 사들이지 못하면 용도가 바뀌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돼 둘레길 조성과 상관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며 “시장 소유의 땅이 포함된 사실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민간업체 용역에 따라 설계 후에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웅천택지지구 '웅천하나로공원' 내 74m 높이의 바위산 전경.

웅천택지지구 74m 바위산

여수 대표 랜드마크 조성

그동안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여수 웅천택지지구 '웅천하나로공원' 내 74m 높이의 바위산이 여수지역을 대표하는 마루지(랜드마크)로 조성될 전망이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 사업비 5897억원을 들여 올 상반기 완공 예정인 웅천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 공원조성 계획 등 주요 계획을 최종 확정해 '웅천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공원조성 계획 변경 ▲공공업무 단지 확충 ▲관광·휴양·상업지구 2·3단계 도로선형 변경 및 건축물 용도 계획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초 명칭 공모를 거쳐 이름을 지은 '웅천 하나로공원' 조성사업도 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여수시는 웅천하나로공원 전경에 36만4379㎡의 면적 가운데 2만 3000여㎡를 차지하는 바위산을 살려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바위산은 여수시의회가 웅천

신도시의 조망권 확보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제거를 결의해 이를 존치하려는 집행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여수시는 웅천하나로공원 안에 심은 조경용 나무들이 크게 되면 해양조망권을 해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바위산 뒷부분에 전망대(팔각정)를 세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중앙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공원에는 잔디광장, 어린이 교통공원, 여수를 빛낸 사람들(조형벽), 하나로문,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축구장, 테니스장, 국제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올 상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바위산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상부의 균열이 심해 위험한 부분을 제거해 바위산의 높이가 애초 77m에서 74m로 낮아졌다”며 “노출된 바위산을 활용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시설로 만들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징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철화기자 chkim@

무안 윤남~신안 압해 교량

‘김대중대교’로 합의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온 무안 윤남과 신안 압해 간 교량 명칭이 ‘김대중대교’로 최종 합의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1월 8일까지 보름간 도(道)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안 윤남~신안 압해 간 연륙교 해상교량 명칭을 ‘김대중대교’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김대중대교, 2명이 신무대교를 선택했다. 지명위원회 조례는 파반수 찬성시 가결토록 돼 있다.

무안 윤남~신안 압해 간 교량은 전남 서남권 발전에 윤활유로 기대를 모았으나 두 지자체가 명칭을 놓고 맞서면서 심의가 연기 또는 보류돼 왔다. 지난해 말에는 도 지명위원회가 두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절충안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무신대교’ ‘압운대교’ 등이 거론됐고, ‘윤남대교’라는 명칭을 놓고는 같은 이름의 교량을 보유한 광주 광산구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지명위원회는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해 말 무안군과 신안군,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난 8일 3차 지명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기념사업회로부터 ‘김대중대교’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까지 받아냈다.

무안 윤남~신안 압해 간 연륙교는 길이 925m, 폭 20m의 1등급로, 2003년 6월 착공해 지난해 말 개통됐다.

/신안=이성선기자 ssllee@



영해관리 거점항 개발 흑산도항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영해관리 핵심 거점항으로 개발할 신안 흑산도항 전경. 흑산도항에는 1265억원을 들여 해양·어업지도선 부두 360m, 선착장 100m와 함께 넓은 여객선터미널을 새로 짓고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신안군 제공>

광양시의회, 市 조직개편 ‘발목잡기’?

“간부 비율 높다” 일부 조례안 삭제후 의결

광양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2012년 4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기초지자체에 설치를 의무화 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기본계획 검토 및 기획 조사 연구와 택

지·산단 개발, 공원복지, 물류단지 등 개발사업의 입지여건과 개발방향 등의 연구, 검토가 목적이다.

광양시는 국토부와 권익위원회, 전남도로부터 수차례 설치에 대한 협조와 권고를 받은데다 최근 전남도로부터 17명을 증원받으면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집행부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무산시킴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와 바람직한 지방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전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 중 20곳이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아직 개정하지 않은 목포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은 시 조직이 5급과 6급 등 간부 공무원의 과다하다는 이유로 기획단 기구조례안을 총무위에서 제외시켰다.

시 의회는 23일 총무위원회를 열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안을 최종 의

결해 시설직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노신 의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부 비율이 높다”면서 “현 시장 임기가 5개월 남았는데 조직개편을 급조해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총무위는 산건위가 조례개정안을 삭제시켜 의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산건위는 총무위가 기구설치 신설 반대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서로 책임 전가로 일관해 기구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15만2000여명의 광양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69명으로 인근 지자체의 45명에 비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새 얼굴

“직원간 소통... 일할 맛 나는 경찰 만들것”

장 효 식 광양경찰서장

“직원간 소통으로 일할 맛 나는 광양경찰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장효식(58) 광양경찰서장은 “소통과 존중은 위로부터 나와야 한다”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상·하 간의 벽이 없고 활력이 넘치는 문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안에 성실히 대처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면 자연

스럽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된다고 평소 소신을 밝혔다.

장 서장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학사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 전남경찰청 치안지도관 등을 거쳤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도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도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

CHAN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